

스포츠

국민의 건강 증진



마라톤 대회

도쿄에서는 매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약 3만 6천명이 참가하며 황궁, 도쿄역, 긴자 그리고 아사쿠사와 같은 도쿄의 여러 관광지가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사진제공 : 교도통신사)

모든 연령층의 일본인들은 선수로서 또는 관중으로서 스포츠를 즐긴다. 일본에서의 스포츠는 자기를 단련하고 인성을 완성하며 패어 플레이를 장려하고 스포츠맨 정신을 심어주는 건강한 오락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일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은 변함없이 '간바레'(힘내라)라는 응원으로 격려를 받는다.

서양의 스포츠를 도입하기 전 일본은 12세기에 탄생하여 무사 계층이 선호한 무도라 불리는 전통 스포츠를 즐겼다. 무도는 검도와 유술(오늘날의 유도), 궁도를 비롯한 다양한 격기가 있다. 에도 시대(1603-1867) 때,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이 운동들은 무도로서 정립되었다. 무도에서 '도'는 길을 의미한다. 수련생들에게는 스포츠의 깊은 '도'에 정통해

지도록 가르친다. 전통 무도는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오면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특히 유도과 가라테는 국제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스모'는 일본의 대중적인 전통 스포츠이다.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수백 년 전부터 프로 선수들이 활약해 왔다. 매 경기 때마다 화려한 '마와시'(살바)만을 착용한 2명의 씨름 선수가 밀고 던지며 '도호'(씨름판)위에서 싸운다. '도호'에서 거행되는 의식 또한 화려하다.

메이지 유신(1868) 이후, 다양한 종류의 서양 스포츠가 일본에 들어왔다. 1872년 미국인에 의해 야구가 처음 소개되었다. 1870년대에는 육상 경기, 럭비, 축구, 아이스 스케이팅이 들어왔다. 1870년대에 트랙과 필드 종목과 축구가 도입된 후 1890년대에 아이스 스케이팅과 럭비가 도입되었다. 1911년에는

운동회

일본에서는 많은 학교가 가을에 운동회를 한다.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다. (사진제공 : Getty Images)



한 오스트리아인이 일본 군대에 스키를 소개했다. 당시의 서양 스포츠는 소수의 사람만이 즐겼지만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서양 스포츠 역시 처음에는 정신수양의 형태로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의 일본인들은 여가 활동으로서 즐긴다.

매년 일본은 10월 2번째 월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 공휴일로 삼고 있다.

스포츠이며 그 다음이 수영이다. J 리그 경기들은 많은 관중을 동원한다.

오늘날의 스포츠

근대 스포츠는 교육 제도가 확립된 18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교육이 체계화됨에 따라 학교들은 체육을 교과 과정에 넣었다. 중학교와 대학에 처음 도입된 스포츠는 육상 경기와 조정, 야구, 테니스였다. 청소년들은 야구, 유도, 양궁, 축구, 수영, 체조, 육상 등의 학교 클럽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받는다. 대부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실시되는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19세기 말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졌다. 1911년에는 이듬해 열리는 제5회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본 아마추어 스포츠 연합(JASA)이 창설되었다. 각 스포츠 종목의 국내 관리 단체들을 비롯한 JASA의 지부들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스포츠 관람

야구는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시즌 중에 프로 야구 경기는 거의 매일 중계 방송되며, 노모 히데오가 미국 LA 다저스의 선수가 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 리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국 고교 야구 챔피언 토너먼트가 매년 열리고 이 경기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1991년 J 리그가 개막되어 축구는 더욱 대중화되었다. 축구는 이제 야구에 이어 초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2번째로 인기 있는

일본 최대의 종합 스포츠 대회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스포츠를 되살리기 위해서 일본 아마추어 스포츠 연합은 1946년 처음으로 국민 체육 대회를 조직했다.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이 축제는 연례 행사가 되었다. 1948년에는 첫번째 겨울 전국 스포츠 축제가 열렸으며 이 대회 역시 연례 행사가 되었다.

통칭 고쿠타이(국체)로 애칭받는 국민체육 대회는 이후, 매년 각 도도부현이 돌아가면서 동계, 하계, 추계의 3개 대회를 열었으나, 2006년부터는 종래의 하계와 추계 대회를 합쳐서, 본 대회로 개최하고 있다. 동계 대회에서는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스키를 실시하고 본 대회에서는 수영, 육상을 시작으로 각종 구기 종목 등을 실시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현에는 천황으로부터 트로피가 수여된다. 황후로부터 받는 트로피는 여자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현에 주어진다. 국체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선수 외에, 외국 국적의 선수라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 참가할 수 있다. 많은 우수한 선수들이 올림픽과 국제 경기에 출전, 참가하고 있다.

국제 대회

일본은 1913년에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극동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일본 정부는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5회 극동 선수권 대회를 위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이



휘트니스 클럽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국민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 개최식 장면이다. 성인과 소년 소녀가 참가하는 일본 국내 최대의 종합 스포츠 대회다. (사진제공 : 일본체육협회)

행사는 아시안 게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51년에 일본은 뉴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다. 65명의 국가 대표 팀이 거둔 좋은 성적으로 국제 선수권 대회에 대한 열정이 높아져 갔다. 일본은 1958년 도쿄에서 제3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였고 1994년에는 히로시마에서 제12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였다. 첫번째 동계 아시안 게임은 1986년에, 두번째는 1990년 삿포로에서 개최하였다. 2020년에는 도쿄에서 다시 하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다.

